

교회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 : 신성종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300

FAX :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여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사12:2)

금요기도회 저녁 8시부터

당회 결정, 전교인 참여 기대

금요기도회 시간이 변경되었다.

그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던 금요기도회가 지난 주일 당회의 결정에 따라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갖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은 금요기도

회 참가 성도들이 증가하고, 또 현재 두 시간으로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신앙 간증이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30분 더 연장하여 2시간 30분으로 늘려잡고, 끝난 이후 귀가 성도의 차량 편의를 위하여 10시 30분에 끝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 결정

은 11월 22일(금) 저녁부터 적용되었으며, 전보다 1시간 앞당겨 실시한다.

현재 금요기도회는 신성종 담임목사가 직접 인도하고 있으며, 신앙 간증을 통한 새로운 패턴의 기도회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

대신충현교회 설립예배 드려

11월 15일 오후 2시에

대신충현교회 설립예배가 지난 11월 15일 오후 2시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대신3리 현지에서 드려졌다.

이 예배는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무교회 농어촌 지역에 지교회를 설립해왔던 전도위원회 위원 5명과 요한전도회 협의회 회원 4명, 마리아전도회 협의회 회원 8명, 기독교 여주 연합회 교역자 5명, 주민 38명 등 총 60명이 참석하였으며, 김경철 장로의 사회, 강협 장로의 기도, 송태근 목사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설립예배를 마치고 대신충현교회 앞에서

우리 교회는 교회 사택 보수, 오르간 기증, 전도용 봉지 구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도 대신3리 일대와 여주군의 복음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게 될 것이다.

성경연구원 수료식

오늘 저녁 7시에

성경연구원은 오늘 저녁 7시 찬양 예배 시간에 91년도 제2학기 수료식을 갖는다.

지난 8월 31일 개강하여 3개월간 진행되어온 성경연구원의 프로그램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가 되었다.

91년도 2학기 수료자 현황은 교사양성부가 129명, 찬양대원양성부가 55명, 대살로니가전서반이 153명, 출애굽기반이 173명, 갈라디아서반이 26명, 사무엘상반이 21명, 마가복음반이 12명, 히브리서반이 34명, 열왕기상반이 20명,

마태복음반이 29명, 호세아서반이 36명, 일러고린도전서반이 9명, 영어로마서반이 18명이며, 개근자는 206명, 모범자는 28명이다.

철야 기도 장소

교육관 107호로 확정

24시간 철야 기도를 위해 당회는 그 장소를 사랑부(교육관 107호) 교실로 확정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갈릴리홀 뒷편 기도실은 계속 사용하되, 저녁 이후 새벽까지는 사랑부 교실을 이용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랑부 교실에 온방 시설을 하도록 했으며, 누구든지 기도하고 싶은 교인들은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키로 하였다.

장년3부 특강

장년3부(부장 마성락 장로, 지도 윤영탁 목사)는 11월 24일 낮 12시 30분부터 교육관 314호에서 박용삼 장로를 모시고 "성숙된 신앙인의 생활"을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신성종 담임목사

저서 안내

신성종 담임목사의 저서들이 현재 테이프보급소에서 판매되고 있다. 구입을 원하는 성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테이프보급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신 목사의 저서는 다음과 같다. 요한계시록강해, 로마서강해, 사도행전강해, 엠마오성경연구, 기독교ABC, 신약역사, 히브리식 사고와 기독교, 신약성경의 주요 메시지, 현대의 복음서 연구, 신약총론, 신약신학,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

청년1부 특강

청년1부(부장 박승준 장로, 지도 김찬곤 목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514호에서 홍창민 목사를 강사로 청빙하여 "기독교 청년과 매스미디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갖는다. 충현 청년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충현프리즘

◎—91년도도 주일로 따지면 다섯 주, 날짜로 치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새해 첫날 우리들이 계획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지만, 인간들의 약속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고 그 열매가 맺어질지 의심스럽다.

바라기는 못다한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이제 다음주(12월 첫주일)부터는 92년도 청지기(일꾼)들이 임명된다. 재직을 비롯하여,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대원, 그리고 구역 권찰 등이 임명되고, 새로운 사업 계획과 행사, 예산안들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어떤 부서, 어떤 영역의 봉사부서를 맡

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야 한다. 혹시나 임명 부서에 불평을 한다든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를 거절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를 생각하면서 92년도 일꾼 임명을 기다려보자.

◎—지난 11월 15일에 거행된 성례식에는 학습 46명, 세례입교 5명, 그리고 개종 3명 등 총 127명이 수세를 받았다.

이날 집례는 신성

종 담임목사와 이조웅 목사, 최인근 목사가 담당하였다.

◎—교회당 주변에 널려 있는 휴지와 쓰레기를 줍는 자가 있고, 깨끗한 곳에 버리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은 항상 깨끗해야 한다.

미화부 직원들이 아무리 힘을 들여 청소를 해도 사용자가 깨끗히 사용하지 않을 때 교회당 주변은 지저분할 수밖에 없다. 성도들 모두가 깨끗히 사용하는 의식을 갖자.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성령의 역사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엡1:11~14)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도 위가 셋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서만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삼각형의 각은 세 개이지만 그것이 이루는 삼각형은 하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위가 셋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을 택하신 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앎은 믿음이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려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품부림을 치고 애를 쓰며 노력을 해도 안됩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무리 씨앗을 뿌려주어도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물을 뿌려주고 거름을 주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앎은 믿음이 신앙에서 더 이상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성령께서 믿음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후에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둘째, 성령께서 인쳐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5:8)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성령께서 인쳐주시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넷째, 성령께서 인쳐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성령께서 인쳐주시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즐거워 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음성을 그리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 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시1:1,2) 사람들은 무엇을 즐거워 하

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일곱째, 성령께서 인쳐주시면 성도들과 교제나누기를 즐거워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3. 결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믿음이라는 씨앗을 던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믿음의 씨앗을 점점 자라게 하여 마침내는 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겨자씨가 자라나서 3미터, 4미터가 넘는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자라나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앎은 믿음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갖기 위하여서는 계속하여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며, 마음 속에 항상 성령의 증거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죄를 회개토록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구원해주시며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믿음을 주심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엡1:13)

성령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마음에 믿음이라는 씨앗을 넣어주십니다. 밭에 콩을 뿌리면 콩이 나고 팥을 뿌리면 팥이 나듯이 성령께서 믿음이라는 씨앗을 넣어주십니다.

씨앗을 심으면 자라나듯이 그 믿음 또한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철학이나 문학이나 과학과 같은 세상 학문을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마치 식물이 물과 거름을 주어야 잘 자라나듯이 우리들의 믿음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10:17)

라는 씨앗을 우리들의 마음 속에 뿌려 주셔야 하고 그런 다음에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는 등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인치심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엡1:13)

“인을 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것으로 “권위가 있다, 진실성이 있다, 소유권을 인정한다, 안전을 보장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장을 찍는 것은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만 보이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은 성령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을 소유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도 도장을 찍힐 만한 사람들과 이마에는 “666”이라는 도장이 찍히고 그런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척의 상징인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인치신 택한 백성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증거는 일곱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성령께서 인쳐주시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자기 잘난 탓에 살고 자기만이 최고인 줄로 알았지만,

신앙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재충전의 기회가 필요

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집니다. 죄악을 즐거워 하는 사람은 사단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그럽고 하나님의 말씀만 즐겁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섯째, 성령께서 인쳐주시면 의를 행하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1:17)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하게 하시며, 의를 즐거워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며,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를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인치심을 받게 하신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흔들립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순간 순간 신앙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재충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넘치고 성령의 체험이 충만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귀한 축복 중의 하나이다. 책을 읽는 기쁨은 실로 무한한 것이다. 책을 읽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풍요로운 유산 가운데 가장 좋은 부분만을 골라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바쁘고, 할 일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책을 읽는 습관만은 꼭 내 것으로 만들어 놓기를 권하고 싶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일 등의 기본적인 욕구는 꼭 충족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량의 가속화 시대, 국제화 시대에 살다보니 책을 읽지 않고서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면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시공(時空)의 제한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오늘 이 시간 역삼동 언덕 위에 있는 충현교회에 있으면서 동시에 베를린의 어느 레스토랑에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독서라는 편리한 행위를 통해서 이 절대적인 모순을 뛰어넘을 수 있다. 즉 16세기의 마르틴 루터와 함께 비텐부르크에서 종교개혁을 논할 수도 있고, 스위스의 쥘레브에서 존 칼빈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다. 공간적으로만 이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적으로도 약 3500여년을 거슬러 올라가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놀라운 출애굽 사건에 참여할 수도 있고, 2000여년 전 이스라엘의 가버나움 근처에서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20세기말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아브라함 링컨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책을 통하기만 하면 아브라함 링컨도 될 수 있다. 독자로서 우리는 작품 속에서 비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삶의 절정에서 승리한 화려한 삶도 맛볼 수 있다. 말하자면 텔레비전 탤런트처럼 여러가지 역할을 연기하면서 인생을 복수적으로 살아볼 수 있는 것이다. 공간적으로 전 우주를 왕래하면서 또 한 시간적으로 수천년을 압축해서 살 수 있는 독서를 통한 체험은 인생을 훨씬 값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옛말에도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 속에 가시가 돋힌다"고 하였다. 하물며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독서 생활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을

충현논단

기독교인의 독서 생활

신표근 목사

(제5교구, 찬양위원회, 안수집사회, 도서추천위원 지도)



까.

정치가 외교 등 국제 무대에 나서서 활약하고 있는 세계 정상급 지도자나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재벌회사의 회장들도 자기의 머리만을 짜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항상 서적 속에서 필요한 부분을 공급받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미국의 국회도서관에는 3백만권의 장서가 있다고 하지 않는가. 아무리 천재적 지혜와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중지를 모으지 않는다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편견과 독선과 독단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유의하여야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책을 과연 얼마만큼이나 읽어야 할 것인가?

옛사람은 한우충동(汗牛充棟)이라 하여 마차에 실으면 소가 땀을 뻘뻘 흘릴 만큼, 집에 쌓아두면 들보에까지 가득 쌓일 만큼의 많은 장서를 읽으라 하였다.

책은 많이 읽을수록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많은 책들을 어떤 것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결국은 골라서 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골라서 읽을 것인가. 사람들 중에도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이 섞여 사는 것처럼 책 중에도 좋은 책과 나쁜 책이 있기 마련이고, 오히려 읽으면 안될 책들, 읽으면 많은 해독을 끼칠 책들도 무수히 많기 때문에 결국 책을 골라서 읽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사실 해야 할 수 없이 많은 책들 중에서 양서를 고른다는 것은 수월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책을 고를 때엔 사계의 전문가의 추천도서나 동서고금의 명작, 정평 있는 고전을 읽는다면 무난하리라 생각한다. 고전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비판되고 취사선택되는 가운데 절대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살아남은 책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고전이고 명작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으

면 지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내가 손에 잡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책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즉 문학 작품이나 수필집부터 시작하여 점차로 세계의 명작이나 역사 서적, 철학 및 사상전집으로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특히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최악의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게 하며 또 인생의 모든 신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책이다. 이 성경은 책 중의 책으로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므로

시공을 초월케 하는 독서를 통하여 믿음의 눈을 열어야

일점일획도 오류가 없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자증(自證)하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단 한 권의 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성경이다.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듯이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창조 이래 인간에게 준 최상의 선물이다. 구세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선한 것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말했다. 실로 성경은 이 세상 그 어느 금은보화보다도, 그 어떤 진리보다도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된다. 사실 성경을 통하여 세상은 바뀌고 나라와 민족은 축복을 받아 부흥하고 발전하고 위대해졌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세상의 유일한 진리요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이나 어촌이나 산간벽지나 제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한 시골의 기독교인 가정에서도 이 성경책은 쉽게 발견되며, 부유하고 이름 있는 명문의 기독교인 가정에서도, 왕실에서 이 성경책을 발견하게 된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가장 중심부에는 종교가 자리 잡고 있다. 서구 문화의 핵은

바로 기독교 문화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기독교가 바로 서구의 정치, 문화, 음악, 미술, 조각, 건축,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방탕 생활을 하던 어거스틴은 성경을 읽다 충격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결국 성자가 되었다. 성경에 근거하여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건국이념과 정치체제를 이룩하였고, 링컨은 노예를 해방하였다.

한편 성경만큼 오해를 많이 받고, 박해를 많이 받았던 책도 없을 것이다. 성경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세력은 예외 없이 성경을 파괴하려 하였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 파괴할 수 없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성경은 100년 이내에 사라지고 기독교도 없어질 것이라 말하였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200년이 지난 오늘날 성경과 기독교는 더욱 부흥하고 그의 집은 아이러니칼하게도 성서공회화 되어 성서를 출판하고 보급하는 핵심센터가 되었다. 성경은 오늘날 2천백여 종류의 방언으로 번역되고 있고, 수십억권이 팔렸으며 날이 갈수록 제일 잘 팔리는 베스트 셀러가 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연간 5천만권 이상 팔리고 있다.

인생은 매우 짧고, 조용한 시간은 극히 드물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책이나 닥치는 대로 읽으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 인생은 만남이라고 한스 카로씨는 말했다. 독서는 인생의 진리와 조우하는 시간이고, 동서고금의 인물과 만나는 시간이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논어를 읽을 때 공자를 만나며, 파우스트를 읽을 때 바로 괴테를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만남은 단순한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 나의 마음을 깨우치고, 나의 영혼을 각성하게 된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과 만나 소리없는 내적 대화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나는 성장하는 것이고, 강해지기도 하고, 착해지기도 하며, 또한 깊어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책을 읽으며 살아야 할까. 누에에 뽕나무 잎을 먹으면서 꿈무늬에서 아름다운 비단실을 뽑아내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성경을 완전한 한 번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 모르겠다. 열흘만 투자하면 성경 일독은 누구나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피로할 때 성경은 나의 침상이 되었고,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불빛이 되었네. 주릴 때 성경은 나의 만찬이 되었고,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었네.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었고, 찬미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었네.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서재가 되었고, 헛발디디어 미끄러질 때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되었네. 위기를 당했을 때 성경은 나의 보호자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 성경은 나의 천국 시민권과 상속권이 되리라."

성경은 모든 기독교인에게 생명의 양식이요 영혼의 보물창고요, 구원의 지침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하며, 성경을 암송해야 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한다. 또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훌륭한 기독교 서적들도 많이 읽어야만 하겠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성경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사상전집, 기독교 고전, 기독교 문학 작품, 교회사나 순교자들의 생애,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면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때로는 간증집이나 설교집도 큰 은혜를 끼치기도 한다. 기독교 서적들을 고르게 섭렵할 때 결국 성경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것이다.

간증

수치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이종영 목사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할머니 등에 업혀 교회를 다녔다. 할머니께서는 이른 새벽이면 베개에 얼굴을 파묻으시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 중에는 손자가 커서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그 당시 할머니께서 전도사를 모셔와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분이 대단히 어렵게 생활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나는 할머니의 기도를 그다지 달가와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였고, 군에 입대해서는 군종참모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목사님이 써주신 설교 원고를 가지고 사병들 앞에서 설교까지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때까지만해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

그렇게 생활하던 75년 어느 날 나는 당시 인기 가수들과 함께 대마초 상용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대마초는 입에 대보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백일 동안 수감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듬어 주셨다. 내가 스스로 교만의 옷을 벗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3백명의 죄수들 앞에서 옷을 벗기시고 발가벗은 채로 동료 가수와 함께 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 그들은 내가 부른 노래를 듣고 앵글을 외쳤다. 인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초라하

고 추한 것인지 그때 알게 되었다.

나는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어떤 사형수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도끼로 살인을 한 그가 예수님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 가슴이 쿵쿵뛰고 소름이 끼치기까지 하였다. 내가 아주 낮아지는 느낌이었다. 그 안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진지하게 읽게 되었다. 전에는 거짓말 같은 성경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전달 수가 없게 되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양심인 줄 알게 되었다. 나는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양심에 비추어보니 너무 더럽고 추한 내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내가 바로 살인자였고 간음자이며 죄인 중에 죄수였던 것이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75년부터 79년까지 연예활동 금지령이

내려졌다. 고민 끝에 내가 그 일 후 목사되기를 서원하니 3일 만에 금지령이 해제되었다.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시키신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하신 것이었다. 온누리교회의 하형주 목사와 박규석 장로님 앞에서 주의 종이 되겠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 후 나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5년만인 서른두살에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할머니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이었다.

지금은 미국 텍사스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유학오는 군인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잘 심어 놓으면 한국에 돌아와서 부하 장병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기 그지없다.

할렐루아찬양대 서울성가제 참가

할렐루아찬양대(대장 차진득 장로, 지휘 박창훈 선생)가 11월 25일(월) 오후 7시 30분에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서울성가제에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참가하게 되었다.

한국성가학회가 주최하는 이 성가제는 맹인선교단체인 새빛

선교회 후원을 위한 것으로, 우리 교회 찬양대를 비롯하여 4개 찬양대와 오현명씨 등 성악가도 함께 참가한다.

이날 할렐루아찬양대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와 "오 나의 주"를 부른다.

교구 모임 장소 변경

12월 1일(주일)부터 교구 모임 장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구	장 소	교구	장 소
1교구	임마누엘홀	10교구	본당 좌측
2교구	갈릴리홀	11교구	교육관 307호
3교구	교육관 314호	12교구	베다니홀
4교구	교육관 407호	13교구	교육관 107호
5교구	교육관 205호	14교구	아멘홀
6교구	교육관 212호	15교구	본당좌측
7교구	교육관 202호	16교구	교육관 414호
8교구	본당 우측	17교구	교육관 301호
9교구	할렐루아홀		

'91 제1교구 가족 잔치

일시 : 11월 28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 만나홀

'91 제1교구 가족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키가 큰 길다란 대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곳곳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줄기 사이 사이마다 매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아야 하는 11월말쯤이면 매듭을 만들듯이 다음의 마디를 위해서 점검과 확인, 그리고 희망찬 미래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 1교구 전 가족을 초대하여 금년 한 해를 회고하며 다짐하고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하는 성도간의 교제를 준비했습니다.

큰 교회이기에 소홀하기 쉬운 형제적인 교제를 더욱 두텁게 하고 우리 속에 허락하신 풍성함을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선포하는 데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교구장 이종석 장로

장로칼럼

정든 우리



김종구 장로
(중동1부 부장)

황금빛 찬란하던 들녘에 알곡들은 농부들의 바쁜 손놀림 속에 창고에 들어가고 아름답게 물들었던 단풍잎도 자주빛으로 변해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늦가을. 때늦은 가을비가 온종일 내린다. 땅거미 짙어지고 어둠이 내리는 저녁 비바람은 더욱 새차게 불어온다. 추수하느라 지친 몸들 쉬라고 내린 비인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있을 때 어디서 들려오는 애처로운 소리에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누렁이가 안절부절하면서 부엌으로, 마루로 헛간으로 부산히 뛰어다닌다. 불려도 보고 쓰다듬어도 주었지만 불안한 빛을 감추지 못한다. 왜 저럴까. 며칠 전 탈곡을 하기 위해 누렁이의 정든 동우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불어오는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도 애타게 찾아헤멘 것이다. 한갓 미물인 짐승도 정든 자기 집을 잃었을 때

저렇게 방황하고 불안해 하는가. 짚을 깔고 한옷을 퍼서 자리를 만들어주었지만 정든 제 동우리가 아니라고 들어가지 않는다. 내가 들어가라고 강요하면 앉아 있다가도 자리를 떠나면 여전히 뛰어다니면서 쾅쾅대고 운다. 밤이 깊어지고 거센 비바람에 문풍지마저 요란하게 운다. 누렁이는 밤새 어디에서 지낼까. 잠은 좀처럼 오지 않는다. 오늘 따라 떨어지는 낙수물 소리마저 구성지게 들린다.

언덕 아래 우뚝 선 교회 종각에서 적막을 뚫고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교회를 향할 때 어디서 잠을 잤는지 아니면 밤새 해매었을 누렁이가 주안을 알아보고 따라왔다. "사람의 편리만 생각한 게 내게는 무척 고통스러웠지. 미안하구나." 누렁이는 꼬리를 치며 괜찮다는 듯 좋아만 한다. 날이 밝았다. 새 동우리를 만들어 제 자리에 놓아주었다. 이젠 언제까지나 이 동우리에서 행복하여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 조건이 있다면 의식주라 하겠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밥만 먹고는 못산다고 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잃는 것은 어떠한가. 현대인들이 한 가지에 수십만원, 수백만원을 들여 사치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오히려 거주장소라는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극찬을 하신, 생명 강수가 흐르고 달달이 열매

가 맺히는 예덴동산.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 동우리 같은 집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의 신경을 긴장시키는 어린이 유괴 사건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오늘도 수천명의 어린이들이 어느 장소, 어떤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추위가 다가오니 따뜻한 옷일까. 아니면 기름진 진수성찬일까. 따뜻한 옷과 진수성찬이 그림자 할지라도 가장 애절한 소원이 있다면 태어나고 자라던 정든 동우리, 내 부모 형제들이 오손도손 살고 있을 정든 우리 집(동우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 했던가.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노도광풍이 일고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은 손님처럼 찾아오니 지치고 쓰러져 낙망하고 한숨 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던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생각나게 한다. 짚을 잃고 방황하는 어린이가 되지 말고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하나님의 전(殿)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고, 만민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곳,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곳, 새벽 이슬같이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동우리 충현으로 모이자.

다음호 칼럼은 이훈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